

완도군 “고산처럼 달빛 아래 걸어요”

30일~10월9일 ‘고산야행’ 보길도 세연장 무료 개방... 풍류공연·미식회 등 다채

가을밤 완도 보길도에서 고산야행과 풍류공연, 미식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완도군은 30일부터 10월9일까지 ‘플레이 아일랜드 완도’를 주제로 ‘2022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 보길도 세연정에서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고산 야행(孤山夜行)’과 ‘풍류 문화 공연’, ‘보길도 미식회’, ‘보길도 윤스테이’ 등이 진행된다.

세연정은 고산 윤선도 선생이 조성한 조선시대 대표 정원으로 부용동에 자리하고 있다. ‘세연’이란 주변 경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해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행사기간 중 보길도 세연정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고산 야행’은 오후 6시부터 밤10시까지 야간조명이 밝혀지면 고즈넉한 세연정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백숲에는 포토 존도 마련했다.

10월8일에는 세연정에서 거문고, 대금, 아쟁 장구 등 국악공연이 펼쳐지고 기타, 색소폰, 중학생 밴드공연 등도 곁들여진다.

‘보길 미식회’는 보길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산물인 전복을 활용해 전복 해산물 떡볶이, 탕수육, 김밥 등을 선보인다.

‘보길도 윤스테이’는 블로그를 활용해 고산야행,



완도군이 30일부터 10월9일까지 ‘플레이 아일랜드 완도’를 주제로 ‘2022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행사를 개최한다. 야간조명이 밝혀진 세연정 내 동백숲. <완도군 제공>

미식회 등을 SNS에 소개하고 행사 프로그램과 보길도도 홍보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길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관광청(세연정 매표소)에서 안

내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playislandwando>), 인스타그램(@play_island_wa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조선업 인력 수급 지원사업 추진

이주정착금 지원 등

영암군이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업 인력수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조선 산업현장이 지난 2015년 국제유가 하락 이후 대규모 인력이탈이 발생해 하청업체가 물량을 반납할 정도로 생산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퇴직자 희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등의 인력수급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타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 및 관내 조선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 월 25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에 근로자당 월 최대 21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퇴직자 희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조선업 불황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영암군으로 전입 및 신규취업 시 월 25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군은 법무부에서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역 우수외국인과 동포 외국인에게 각각 5년, 2년 간 군에 취업·거주 시 비자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작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내국인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적기 인력수급 및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무안군, 5060 경력형 일자리 추진

퇴직교사 아동 학습지도·제조업 매니저 사업 등 공모 선정

무안군이 50~60대 신중년들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무안군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관련 경력을 보유한 50~60대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일자리를 창출·고용하는 사업으로 신중년의 재정적·사회적 재기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퇴

직교사 지역아동 학습지도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유치원 등 교육서비스 수요기관 아동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제조업 기술계 기능 매니저’ 사업은 권역별로 분류된 제조업 기업들에게 신중년의 노하우와 안전 예방요령 등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군은 내년 2~3월 중 대상자와 참여기관 및 기업을 모집한 뒤 8~9개월 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 시내버스 멈추나... 노조 파업 가결

방법·시기 결정 안돼... 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분주

목포시내버스(태원여객, 유진운수)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목포시가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목포시내버스 노조는 27~28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참여자 318명 중 294명(92.4%)이 찬성해 파업을 가결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5차례 교섭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이후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에서는 지난해 동결된 임금을 여수와 순천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만근일수를 현 13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보전액으로 1인당 30만원 수준

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객 급감과 러시아 사태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스비 대폭 상승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목포시내버스는 현재 근로자 임금 140% 체불과 가스비 4개월분 체납이 발생한 상황이다.

노조 측은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

목포시는 노조 측에 파업일정에 대한 사전예고를 요청한데 이어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전세버스 50대를 임차해 비상수송차량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또 파업기간 동안에는 영업용 택시 1500대의 부제도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인근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무안군에서는 목포 외곽지역인 무안읍, 일로읍, 남악·오룡지구, 군산동 등에 대해 1·2번, 108번, 800번, 200번, 임시노선(무안-남악/오룡)을 운행해 해당노선의 평시 대비 50%의 수송력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비상운송중합상환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버스 운행 중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만으로는 원활한 수송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시민 불편도 불가피하다”면서 “자전거 등 대체교통수단 이용과 자가용 함께 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695가구 1261만원... 지난해 이산화탄소 118t 감축

해남군이 지난해 가정 또는 상가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695세대에 총 1261만원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2021년 한해 해남군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118t 분량으로, 이는 2만 3600여 그루의 소나무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탄소포인트는 과거 2년의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

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할 시 산정되며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개인가정의 경우 1년에 최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연중 참여가 가능하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미스&미스터 진도개 사진 수상작 선정

금상 등 10작품 10월 25일부터 진도개테마파크 전시

진도군이 ‘미스&미스터 진도개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진도군은 진도개 우수성 콘텐츠를 발굴과 홍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서 금상에 허주민(진도)씨를 선정했다.

은상에는 강정학(진도), 이화성(진도) 동상 정중호(진도), 김경숙(진도), 박은초(광주) 장려상 정용석(해남), 이명재(부산), 김대연(진도), 홍성숙(진도) 등 총 10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종 심사는 주제의 창의성, 표현성, 완성도 등을 고려해 선발했고, 진도개 홍보용 사진으로 활용될 선정, 강아지 등의 다양한 사진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입선 10만원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진도개 행사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



금상 수상작 ‘새벽산행’ (허주민).

한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며 오는 10월 25일부터 진도개테마파크 내 진도개 홍보관에 수상작들이 전시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미스&미스터 진도개 사진 콘텐츠를 이용해 진도개를 홍보하고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의 보호와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